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회	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ke.go.kr http://www.winwingrowth.or.kr

문의 :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(02-2110-3994), 박일철 사무관(3995)
동반성장위원회 오완진 부장(02-368-8410)

홍석우 장관,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취임 후 첫방문

-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 추진키로 뜻 모아 -

홍석우 장관은 유장희 신임동반성장 위원장을 방문하여,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동반성장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.

< 방문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2. 5. 2(수) 14:50 / 동반성장위원회

○ 참석: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,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

4.30일 유 위원장 취임직후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, 동반성장의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민간부문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위원회의 양 수장이 처음 자리를 같이 하고, 정부-위원회간의 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호 재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.

홍 장관은 유 위원장이 취임일성(4.30)으로 제시한 '소통·합의의 위원회'와 '현장의 중요성'에 적극 공감하면서,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된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.

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지경부와 위원회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.

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지난 1년간 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, 동반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·CEO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대기업의 진정성있는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.

홍 장관과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력사에 대한 투자·인력 지원 등 구체적 협력활동이 필수적이며, 이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, 향후 동반성장에 대한 평가·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구체적 동반성장 시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상시적 소통을 통해 최대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로 하였다.